

설치미술가 양혜규, 풍피두센터서 개인전

5 July, 2016 | 권혜진 기자



양혜규 작가가 프랑스 파리 풍피두센터에서 오는 6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인전을 연다고 국제갤러리가 5일 밝혔다. 양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전시회 제목과 같은 이름의 설치작 '좀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'를 선보인다.

풍피두센터 중앙홀에 설치되는 이 작품은 초록색과 연보라색 격자 200여개로 이뤄진 블라인드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이다.

지그재그로 쌓인 블라인드는 미술관 전면 유리벽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 색 혼합을 일으키며 내외부의 관계성을 극대화한다.

이 작품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햇빛을 통해 드러나는 반투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긴장이라고 국제갤러리는 설명했다.

제목의 '누스'(nous)는 그리스어로, 우주의 원리에 상응해 진리와 상식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지각 능력이나 마음의 활동을 뜻한다.

이밖에 2004~2006년작 '비디오 3부작'과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상영됐던 '쌍과 반쪽-이름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'도 이번 전시에서 다시 선보인다.

양 작가는 프랑스 유명 출판사 '레 프레스 뒤 렐'을 통해 도록을 출간하고 도록 출간을 기념해 10월 21일 풍피두센터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열어 프랑스 관객들과 만난다.